

#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 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SER no.014; はじめに

メタデータ	言語: ja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朝倉, 敏夫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a href="http://hdl.handle.net/10502/1261">http://hdl.handle.net/10502/1261</a>

## <はじめに>

朝倉敏夫

国立民族学博物館の研究活動は三つある。一つは、研究部教官が各自で行う各個研究、二つは、大学共同研究機関として専門を異にする複数の研究者が共通の課題のもとに行う共同研究、そして三つが、本館が博物館活動を含む民族学研究の国内および国際的なセンターの一つとして今日的な民族学の課題に積極的に取り組むため、そして本館研究部全体が参画しうる研究が必要であるという認識から、館内において議論がなされ立ちあげられた機関研究である。

この機関研究の一環として、1999年度（平成11年）から3つの重点研究プロジェクトを柱とした新たな研究体制が発足した。3つの重点研究プログラムの課題は、「人類学的歴史像の構築」、「トランス・ボーダー・コンフリクトの研究」、そして「文化表象の博物館人類学的研究」で、それぞれの研究期間は5年間である。

さて、今回の国際シンポジウム「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は、この重点研究プロジェクトの内、「文化表象の博物館人類学的研究」の一環として行われた。すなわち「文化表象の博物館人類学的研究」では、「現在、民博では、博物館における文化の表象に関して数々の基礎的研究や技術的研究が行われ、それぞれに注目すべき成果をあげているが、それらは各々別個に進められ、館内外の研究者はその内容が十分に把握できない状況にある」という現状把握のもと、「本プロジェクトでは、これら現行の研究を統合的かつ有機的に運営し、博物館における文化表象のあり方を批判的に検討するとともに、既成の観念に縛られた表象の様式を洗い出し、グローバル化が進む現代的状況のなかでの民族学博物館、さらにはより広くミュージアムという装置の可能性を探る」ということを目的とした。

と同時に、このシンポジウムは、2000年3月15日に、本館東アジア展示場にある「朝鮮半島の文化」展示の様式替えが実施されたのを受けて、シンポジウム参加者に新しい展示に対する検討・評価を行ってもらおうという試みでもあった。

ことに本館での韓国文化の表象について韓国の方々がどのようにお考えになるか、その意見をうかがうため、韓国から博物館関係者など8名を招いた。その構成は、専門分野、年代、性別を考慮し人選を行った。発表者順に名前をあげると、全京秀教授

## 머리말

朝倉敏夫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연구 활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연구부 교수가 각자 행하는 연구, 둘째는 전문을 달리하는 여러 명의 연구자가 대학 공동 연구 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구, 그리고 셋째는, 본관이 민족학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본관 연구부 전체가 참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관 연구의 일환으로서 1999년부터 세가지 중점 연구 프로젝트를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 체제가 발족되었다. 세가지 중점 연구 프로젝트의 과제는, 「인류학적 역사상의 구축」, 「트랜스·보더·컨플릭 연구」, 「문화 표상의 박물관 인류학적 연구」로, 각각의 연구 기간은 5년이다.

이번 국제 심포지움 「일본에서의 한국 문화 표상」은, 중점 프로젝트 안의 「문화 표상의 박물관 인류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즉 「문화 표상의 박물관 인류학적 연구」는, 「현재, 민박은, 박물관의 문화 표상에 관한 수많은 기초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를 실시하여, 각각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그것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 내외의 연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현황에 의거하여,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현행 연구를 종합적 또는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박물관 문화 표상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기성 관념에 얽매인 표상 양식을 씻어내고,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대적 상황 안의 민족학 박물관, 나아가서는 모다 넓은 뮤지엄 장치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심포지움은, 2000년 3월 15일, 본 박물관 동아시아 전시장에 있는 「반도의 문화」가 전시 변경된 것을 계기로, 심포지움에 참가자로부터 새로운 전시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했다.

특히 본 박물관의 한국 문화 표상에 관하여 한국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 박물관 관계자 8명을 초청하였다. 멤버는 전문 분야,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했다. 발표순에 따른 이름은, 全京秀 교수(서울대학교 人類學科; 인류학의 입장), 鄭鍾秀과장(韓國 國立民俗博物館 민속연구과; 민속학의 입장), 鄭勝謨선생(地域文化研究所·전 서울시 市

(ソウル大学人類学科)には人類学の立場から、鄭鍾秀課長(国立民俗博物館民俗研究課)には民俗学の立場から、鄭勝謨先生(地域文化研究所・前ソウル市立博物館)には歴史民俗学の立場から、孟仁在先生(韓国文化財委員)には美術文化史の立場から、崔鍾浩館長(韓国民俗村民俗館)には博物館学の立場から、李仁淑館長(京畿道博物館)には博物館学および女性の立場から、それぞれ発表をお願いした。また、司会・討論参加者として、金時徳先生(韓国国立民俗博物館)、宋聖熙先生(大東文化財研究所)を招いた。

日本国内からは、司会者として崔仁宅先生(宮崎公立大学)、金柄徹先生(亜細亜大学)、李善愛先生(宮崎公立大学)、広島修道大学に客員教授として来ている徐栄振先生(光州日報社)の韓国人研究者4名と、釜山外国語大学にいた浮葉正親先生(名古屋大学)、翰林大学にいた島村恭則先生(国立歴史民俗博物館)の韓国の大学で教鞭をとった経験をもつ日本人研究者2名の計6名を招いた。これらの方々は若い世代を中心として招き、このシンポジウムが今後の日韓研究のための相互交流の場のきっかけとなるよう願った。

さらに、97年度から3年間、本館で行った共同研究「『もの』を通して見た朝鮮民俗の研究」のメンバーにも討論に参加してもらった。あいにく年度末の忙しい時期であったこともあり、メンバー全員の方には出席していただけなかったが、今回のシンポジウムには、あいうえお順に、伊藤亜人先生(東京大学)、岡田浩樹先生(甲子園大学)、佐々木史郎先生(宇都宮大学)、重松真由美先生(国立民族学博物館)、嶋陸奥彦先生(東北大学)、鈴木文子先生(島根大学)、秀村研二先生(明星大学)が出席した。

このほかオブザーバーとして、大塚和義先生(国立民族学博物館)、金炫栄院長(大阪韓国総合教育院)や、多くの大学院生が出席した。

今回の討議は原則として韓国語で行ったが、二日目の討論においては、金美善さん(大阪大学院生)と高正子さん(総合研究大学院大学院生)がボランティアで同時通訳を行ってくれた。

また、このシンポジウムにあたって、開会挨拶および館長招宴をしてくださった石毛直道館長、館長招宴で特別に韓国料理を準備していただいた韓国料理研究家の蔡淑美先生、実行委員の中牧弘充教授、事務局の国際協力課の皆さんをはじめ多くの方々のお力添えをいただいた。記して感謝する。

立博物館; 역사민속학의 입장), 孟仁在선생(韓國文化財委員; 미술문화사의 입장), 崔鍾浩관장(韓國民俗村民俗館; 박물관학의 입장), 李仁淑관장(京畿道博物館; 박물관학 및 여성의 입장)이다. 또한 사회 및 토론 참가자로서 金時德선생(韓國 國立民俗博物館)과 宋聖熙선생(大東文化財研究所)을 초청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사회자로서 崔仁宅선생(宮崎公立大學), 金柄徹선생(亞細亞大學), 崔善愛선생(宮崎公立大學), 廣島修道大學에 객원교수로 와 계신 徐榮振선생(光州日報社)의 한국인 연구자들 4명과, 釜山外國語大學校에 계셨던 浮葉正親선생(名古屋大學), 翰林大學校에 계셨던 島村恭則선생(日本國立歷史民俗博物館),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경험이 있는 일본인 연구자 2명, 합하여 6명을 초청했다. 일본 국내에서 초청한 분들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번 심포지움이 앞으로의 일한 연구를 위한 상호교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97년부터 3년간 본관에서 실시한 공동 연구「물건을 통해서 본 조선 민속의 연구」멤버들도 이번 토론에 초청했다. 공교롭게 이번 심포지움이 년도말의 바쁜 시기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멤버 전원이 출석하지 못했지만, 순으로 伊藤亞人(東京大學), 岡田浩樹(甲子園大學), 佐々木史郎(宇都宮大學), 重松眞由美(國立民族學博物館), 嶋陸奧彦(東北大學), 鈴木文子(島根大學), 秀村研二(明星大學)의 선생님들이 출석하셨다.

그 외에도 업저버로 大塚和義선생(國立民族學博物館), 金炫榮원장(大阪韓國語綜合教育院), 그리고 많은 대학원생들이 출석하셨다.

이번 토의는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됐으나, 이튿날의 토론은 金美善선생(大阪大學大學院生)과 高正子선생(綜合研究大學院大學院生)가 자원 봉사로 동시 통역을 맡아 주었다.

또한, 이번 심포지움의 개최 인사 및 초대연을 열어 주신 石毛直道관장님, 초대연에서 특별히 한국 요리를 준비해 주신 한국 요리 연구가 蔡淑美선생, 실행 위원 中牧弘充교수, 사무국 국제 협력과의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력에 감사 드리는 바이다.



石毛館長の挨拶 司会：重松真由美先生  
孟仁在先生から石毛館長への記念品贈呈





展示場での解説 上の写真右端が朝倉敏夫



